



인도(뉴델리)사무소 **해외동향보고서**

작성팀 마케팅지원팀 담당자 하 승 창 소 장 일 시 2 0 2 5 . 2 .

CEPA Insight

- 美·中 관세전쟁 수혜국은 '인도'...
- UPI(통합 결제 인터페이스, Unified Payments Interface)가 바꾸고 있는 인도 경제

▶ 美中 관세전쟁 수혜국은 '인도'...

- '넥스트 차이나'로 불려온 인도 "트럼프 1기보다 무역전쟁 수혜 클 것"
- 트럼프발 관세 전쟁 분위기에서 '넥스트 차이나' 인도가 탈중국화의 최대 수혜국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옴. 이에 성장주를 필두로 인도 증시의 미래가 밝다는 전망. 6일 LS 증권은 '관세 전쟁' 반사 수혜국으로 인도를 주목 국가로 꼽았다. 그 중에서 도 성장주 관련 보고서를 통해 인도 시장의 투자 전망을 높이 평가. 하장권 LS증권연구원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우려, 중국의 관세 리스크로 양국 증시의 불확실성은확대됐다"며 "인도 증시는 아시아 신흥 시장 중에서 대만과 함께 가장 지지력이 강하다"고 분석.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인도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
- 현동식 한국투자신탁운용 해외비즈니스본부장도 3일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견제하는 정책을 유지하면서, 대체 생산기지로 인도가 떠올랐다"며 "최근 10년간 모디정부가 제조업 인프라를 확충한 만큼 1기 때보다 더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함.
- 글로벌 기업들의 탈중국 인도향(向) 현상은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됨. 지난해 애플은 공급망 내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자 인도에 새 공장을 짓고 인도 내에서만 175억 달러 상당의 아이폰을 생산. 현대자동차 역시 지난해 중국 충칭 공장을 매각하고 인도 증시 상장을 진행하는 등 인도 투자 가속화.
- 런던증권거래소그룹(LSEG)에 따르면 2020년 이래 인도 증시의 외국인 자금 유입은



2023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1월 순 유입 전환에 성공. 이후로도 인도 증시로의 외국인 순 유입은 지속돼 2023년부터 외국인 자금 유출이 시작된 중국 등 아시아 신흥 시장보다 나은 모습을 보임. 그러나 점차 감소하는 인도의 경제성장률은 투자 불안 요인으로 꼽힘.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인도의 성장률 전망치가 6.5%로 책정해, 2023년(8.2%)과 2024년(7.0%)보다 둔화할 것으로 내다봄. 하 연구원은 "현재인도 증시 전반의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어 희소성이 있는 일부 성장주가 가치 주를 능가할 것으로 본다"고 예측. (출처: 매일경제 / 2025. 2. 6.)

■ UPI가 바꾸고 있는 인도 경제

- UPI(통합 결제 인터페이스, Unified Payments Interface)는 디지털 결제 플랫폼으로, 여러 은행과 결제 앱이 실시간으로 상호 작용하며 송금이나 결제가 가능 하도록 연결해주는 시스템. 인도 중앙 정부 부처인 인도전자정보기술부(MeitY, Ministry of Electronics and Information Technology)와 인도 중앙은행(RBI, Reserve Bank of India)의 지원을 받아 NPCI(인도국가결제공사, National Payments Corporation of India)가 인도의 광대한 영토와 인구로 인한 금융 접근성 문제와 현금 의존도를 줄이고자 2016년에 UPI를 도입하였고 2023년 기준 UPI의 연간 거래액은 2조 2000억 달러로, 이는 인도 GDP의 61%에 해당하는 규모로 성장하며 인도 디지털 결제 시장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음.

※ UPI 전망

NPCI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UPI는 2023년에 약 1,176억 건의 거래를 처리하며, 전년 대비 59% 증가를 기록. PwC(Pricewater house Coopers) 인디아는 2029년까지 UPI가 전체 디지털 결제 산업 거래량의 91%를 차지하며 약 4,390억 건의 거래를 처리할 것으로 예상. 저렴한 결제 수수료, 높은 개인 정보보안, 뱅킹 플랫폼 통합 및 연중무휴가용성 등을 장점으로 함.

※ UPI 관련 투자 기회

○ **핀테크 스타트업과 디지털 결제 플랫폼**: UPI 생태계는 금융과 기술이 합쳐진 핀테크 스타트업과 디지털 결제 플랫폼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창출. KPMG(Klynveld Peat Marwick Goerdeler)에 따르면, 인도의 핀테크 부문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할 것이며, 2030년에는 시장 규모가 2,00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



- 디지털 인프라 및 데이터 센터: 빠르게 확장하는 인도의 디지털 결제 생태계는 강력한 인프라, 특히 방대한 양의 거래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를 필요로 함. 인도중앙은행이 디지털 거래 정보의 인도 내 저장을 의무화하는 지침을 발표하며 현지 데이터 센터가 더욱 필요해짐. 이에 따라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서비스, 사이버 보안 솔루션의 구축 및 관리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며, Microsoft와 Amazon Web Services(AWS) 등의 해외 기업들의 2021-2024년 누적 투자액은 66억 달러를 넘어섬.
- 해외 결제 솔루션: UPI가 국제 결제 시스템과 통합됨에 따라 국경을 넘나드는 결제를 지원하는 솔루션에 대한 요구가 증가. 싱가포르의 PayNow와 같은 해외 결제시스템과의 연계는 디지털 결제 생태계가 인도의 국경을 넘어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 해외 투자자들에게는 인도와 더 넓은 남아시아 지역의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또한, 투자자들은 특히UPI의 최근 국제 파트너십을 통해 기업이 인도 국경을 넘어 더 쉽게 결제를 진행할 수 있도록 자본을 활용할 수 있을 것.
- 스마트 리테일 및 판매시점관리(PoS) 솔루션: UPI는 소기업과 소매업체가 디지털 결제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소매업에 혁신을 가져옴. 이러한 발전의 다음 단계는 기업이 결제, 재고 및 고객 응대를 더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UPI 지원 스마트 PoS(Point of Sales)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 이 분야에 대한 투자에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합 리테일 솔루션이 포함.

(출처: 코트라 첸나이무역관 / 2024. 11. 18.)

■ 시사점

2023년 인도에서는 UPI를 통한 약 1,176억 건의 거래가 이루어지며 2022년보다 59%를 증가를 기록. UPI 기반 결제 방식은 아랍에미리트, 싱가포르, 부탄, 네팔, 스리랑카, 프랑스, 모리셔스에서 사용 가능 하고 인도 경제 성장과 앞으로 더 많은 국가에서 가능해질 것. 앞으로 인도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UPI 관련 산업들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인도 시장 진출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끝.